어린이 책꽂이

▲미켈란젤로=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은 전기. 미켈란젤로의 삶이 이끄는 작품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술사를 이해할 수 있다.

〈맑은 가람·9천원〉

▲마주보는 세계사교실(제6권)=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쳐 세계역사를 주도한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제6권 '석탄과 기계가 세계를 지배하다' 편에서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미국의 제국주의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웅진주니어·1만원〉

▲한·중·일 얽히고 설킨 역사이야기=명나라에 잘못 전해진 조선왕조 족보사건의 진실은? 한국, 중국에서만 과거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 등 한·중·일의 얽히고 설킨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계림북스·1만1천원〉

▲프라다칼로의 파란집=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과 창작열을 환상소설로 그려냈다. 교통사고와 남편과의 불화 등 온갖 역경을 딛고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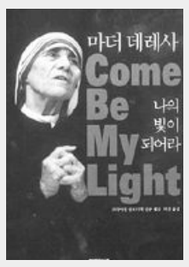
〈파란자전거·9천800원〉

▲책읽는 허수아비=책은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인공 소년은 허수아비 피트와 토론을 벌이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피터팬 등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고전들이 들어있다.

〈예꿈·8천500원〉

가난한 자의 어머니 '아름다운 고백'

마더 테레사… 브라이언 콜로디척 지음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 영혼은 너무 많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신앙도, 사랑도, 열정도 없습니다. 영혼도 저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천국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느님께 계속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1957년 마더 데레사가 페리에 대주교에 보낸편지 중〉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자 성녀 마더 데레사. 그녀의 서거 10년을 맞아 그녀가 남긴 편지들을 모아 엮은 책 '마더 데레사-나의 빛이 되어라'가 완역되어 나왔다.

마더 데레사의 시성 청원자이며 '마더 데레사 센터'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콜로디척 신부가 자료를 모아 편집하고 설명을 덧붙인 이 책은 그녀가 지인들과 나누어왔던 종교적 영감과 비밀들이 가득 담겨 있다.

연대 순으로 기술된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책의 1장과 2장은 '부르심 안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기 전, 스코페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특히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이었던 로레토 수녀회 시절 마더 데레사의 삶을 보여준다.

3장부터 7장까지는 1946년 9월 10일에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라는 계시를 받은 일과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 일어난 극적인 일들,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 빈민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을 실천하는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룬다.

이 책은 종교를 초월한 모든 인간에 대한 연민의 아이콘으로서 마더 데레사 보다는 수도자로서의 내적이고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고뇌를 '영혼의 어둔 밤'이라 표현했다. 모범적이고 신비한 종교인의 모습 뒤에 감춰진 강렬한 믿음의 시련, 영적 고난 속에서 때론 절망했지만 기쁨과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마더 데레사의 숨겨진 고통은 읽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브라이언 콜로디척 신부는 이와 관련 "데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일 뿐'이라고 기도했다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신앙속의 어두움(darkness within faith)'을 평생 껴안고 믿음으로 충만한 궁극적 구원(persaverrance)을 이뤘다"고 쓰고 있다.

책은 또 충격적일 정도로 현대 성녀의 진정한 내적 삶을 추적하고 있다. 마더 데레사가 어떻게 선교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는지, 왜 늘 그녀가 기뻐했는지, 또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언의 답을 준다.

"만일 제가 성녀가 된다면 분명 '어둠'의 성녀일 것입니다. 언제나 어둠에 빛을 밝히러 세상에 내려가 있을 테니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1962년 마더 데레사가 예수회 요제프 노이너 신부에게 보낸 편지 중〉

마더 데레사의 '사명선언'으로 여겨지는 이 글은 그녀의 영적 삶과 더 나아가 전 생애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하마터면 어둠속에 숨겨지고 한줌의 재가 될 뻔한 고귀한 편지들은 이제 세상에 나와 빛이 되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오래된미래·1만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이문재 '꽃이 져도 너를 잊은 적 없다'

맞춤형 독서라는 말이 있다. 요긴한 인용문구 하나라도 얻을 양으로 집어들고 하는 독서, 요즘 내 독서행태가 꼭 이렇다. 출판 홍수시대에 익사하거나 실종되지 않고 읽을 만한 책을 골라 독서하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닐 터.

가을이 뒷모습 보이며 저만치 가고 있는 시간에야 막 독서를 끝낸 책이 '꽃이 져도 너를 잊은 적 없다'이다. 56인 시인의 시편을 이문재 시인이 골라서 엮고 짤막한 독후감을 곁들인 141쪽 짜리 시집이다.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이 시인이 모 일간지 지면을 빌려 소개한 것으로 그가 밝힌 선정 이유는 이렇다.

"평소 시를 잘 읽지 않는 독자들에게 다가가고(말을 걸고) 싶었다. 그리하여 시가 더 이상 '음풍농월'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다. 한편의 시가 독자들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바랐다."

그러면서 교과서나 문학 연구자들이 뽑아놓은 '명시'반열의 작품과도 거리가 있고 너무 무겁거나 어려운 시들, 메시지가 강한 시

'시를 골라 먹는 재미'

들, 너무 많이 알려진 시들은 제외했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편자의 변은 겸사에 불과하다.

좋은 시란 항용 인간을 비춰보는 거울의 의미가 다분하고 등불 밝히듯 가슴이나 머리에서 깨달음이 번져오는 작품을 말한다. 좋은 시는 그만큼 삶의 방식과 의미를 바꿔놓으며,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 책에는 갈피 갈피 접어가며 반복해서 읽고 아예 외워버리겠다 싶은 작품들도 수두룩하다. 좋은 시편들을 굴비 두릅처럼 볕 좋은 자리에 걸어두고 밥맛을 돋구고 싶다는 내 평소의 생각이 이 책속에서 소롯이 숨 쉬고 있다.

시의 맛은 미주알 고주알 까발린 길고 긴 이야기 속에 있지 않고 촌철살인적 생략과 반전을 체험하는데 있다. 요컨대 식상했던 일상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 호기심이 동할만큼 보고 만지면서 얻어낸 자별한 느낌, 이것이 시를 읽은 재미 아닐까.

'꽃이 져도 …'에 담긴 시편들은 작고 하찮은 사물적 현상들을 언어화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저마다 간절하고 그리운 세상의 프리즘을 아름답게 빚어낸다. 시대와 사회가 경제논리에 밀려 심각한 정서적 노화현상을 겪고 있는 요즈음, 빵만으로는 안 된다는 교조적인 생각들이 새삼 커진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은 가능하다. 아니 대단하다. 평소 내 자신의 생각이다. 독자수가 적다는 시, 그래서 시시하다는 시, 시인은 그래서 시시한 사람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지금처럼 싱싱하고 힘찰 때가 없었다. 시와 시인에 대해 별의별 말들이 오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시집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성찰과 공감의 자리에는 늘상 시가 등장해 채워져 있다.

시가 빛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순간이며 그 순간은 인간의 영원을 지향한다. 어찌 개울물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또 다른 개울물 소리를 들을 수 있으랴. 그런 의미에서 '꽃이 져도…'에 담긴 시적 에스프리는 우리네 영혼에 울림을 지어내고 감동의 언덕까지 출렁이게 한다.

김 종〈시인〉

한국인의 '主食' 김치의 모든 것

김치견문록 김만조 외 1인 지음

한국인의 주식 '김치'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김치견문록'이 출간됐다.

'자연이 키우고 우주가 담근 맛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50년 동안 김치를 연구한 김치박사 김만조씨와 '한국인의 의식 구조' 등을 통해 한국인의 뿌리 찾기에 몰두해온 언론인 고 이규태씨가 집필한 책이다.

천년 동안 이어져온 김치의 역사와 문화, 풍속 등을 담고 있는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배추 씨를 심는 일에서부터 발효 과정을 거쳐 김치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김치의 일생을 읽다'이다.

또 '김치는 무엇으로 단련되는가'에서는 배추, 부추 등 김치의 재료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치미 등 80여 종류의 김치 담그는 법을 소개한 '김치로 사계절을 살다'도 눈에 띈다. 〈디자인하우스·1만6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자체 시행 10년, 소외된 지방

지방은 식민지다 강준만 지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발표로 인해 광주·전남을 포함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사회비평가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어도 한국은 여전히 '서울공화국'인 한국사회를 비판하며 '지방은 내부식민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은 식민지다'는 지방자치와 지방문화, 지방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지방이 식민지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내부 식민지를 탈출할 해법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분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시행, 지방 언론사의 공공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저자는 지방의 성찰도 강조했다. 지방이 지방주의를 내세우며 '절규'하는 것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고민도 헤아려가며 정교한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마고원·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교세관법검철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건호지방술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대폭모집 2만여명 : 9급 국가직 4월 중순, 7·9급 지방직 5월하순, 7급 국가직 7, 8월 시행
※내년부터 : 연령상한 없앤다 (생활안정, 신분보장)
개강 11월1일(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 90만원(교재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英·國)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si.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_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 · 성인반 (주간반, 야간반)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개강일정 마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첨단점 ☎ 971-0002 (구)벽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月 3日(주,야) 처음시작하신분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국비무료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확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